

지카 바이러스

WHO, 국제비상사태 선포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는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외부 전문가 18인의 긴급위원회는 최근 브라질에서 보고된 소두증과 그 밖의 신경장애 사례는 '이례적인 일'로 그 밖의 다른 지역 공중보건에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감염국가 내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小頭症) 신생아의 출산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임신부는 중남미 등 지카 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밀려드는 난민... 지쳐가는 유럽

갈 곳없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유럽으로 가기 위해 난민들이 몸부림 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

처음 난민들을 환영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최근 獨 킴른에서 발생한 무슬림들의 집단 성폭행 등 무차별적 난민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으면서 점차 지쳐가고 있다.

獨메르켈 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난민들은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오스트리아는 빨리 돌아가면 지원금을 더 주겠다고 했다. 난민 관문 국가들

은 자신들이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요르단 등 유럽으로 난민들이 건너가는 관문 국가들과 경유국, 수용국 등의 갈등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현재 유럽으로의 1차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에 난민들을 내보내는 것에만 신경 쓰고 국경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

고 있기도 하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마케도니아에 EU 경찰을 보내 그리스 인접 국경 경비 강화에 찬성했다.

요르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자국으로 밀려오는 시리아 난민들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의 몸부림은 필사적이다. 이영인 기자

응답하라 1960 우리들의 잃어버린 교회

1960년대, 한국 농촌교회의 새벽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작은 램프 아래 차가운 마루바닥에 꿰어앉아 조용히 기도하던 모습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슬픈 사연들을 지니고 있어 가식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중에 6.25때 남편을 잃고 외딴 하나 데리고 살던 김아무개 집사님의 찬송가 소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절했다.

새벽기도 시간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부르던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는 그분의 전속곡이었다. 마지막 4절의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하면서 흐느끼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이렇게 욕심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칠 때, 마루바닥에 눈물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 얼어 있었다.

"교회음악 총신동문들의 선교사 사랑"

오지 선교사들 돕기 위해... 자비량으로 달려온 한 마음

지난달 31일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로부터 달려온 교회음악 총신동문들이 한인소망교회(담임 윤목 목사)에 모였다.

윤목 목사는 동문 후배인 바리톤 김정호(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 상임단원)와의 통화에서 코스타리카 선교사인 전영진, 홍수진 선교사를 돕기로 했다. 홍수진 선교사는 현재 항암치료 12차 중 10차를 무사히 마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선교사를 돕자는 취지를 접한 교회음악 총신동문들이 발벗

고 나섰다. 오스트리아와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자비량으로 달려왔다.

1부 오페라 아리아와 2부 찬양과 경배의 순서로 드려진 음악회는 청중들을 은혜와 감동으로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날 윤 목사는 시편 148편 1-2절 중심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자리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우리 안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병중에 있는 선교사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



지난달 31일 한인소망교회에서 선교사 돕기 교회음악 총신동문들의 음악회가 열렸다.

혜가 임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드려진 헌금과 한인소망교회에

서 준비한 선교헌금은 코스타리카의 전영진, 홍수진 선교사, 몽골의

허성근 선교사, C국의 최다니엘 선교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오페라단의 바리톤 김정호, 미시간주의 그랜드벨리 주립대학교 성악과 교수 테너 진철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박영미, 임미라, 소프라노 허성희, 피아니스트 조아라, 남현선 미주총신동문합창단, 한인소망교회 성가대 등이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참여했다.

한인소망교회찬양대와 미주총신 음악과 동문들이 함께 '은혜 아니면', '여기에 모인 우리' 등을 합창하는 가운데 음악회의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이인규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주강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강사 강명옥 전도사, 박주성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6년 4월 18일(월) - 4월 23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담임목사 참가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등록서류 신청서, 주보, 사진 1매
 등록마감 2016년 3월 21일(월)
 등록비 \$390(숙식 및 강의안 포함)
 등록처 국제제자훈련원(T.714 635 3000)

“예배회복운동 나이스크 신임 임원 취임예배”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 등 신임 임원 임명하고 취임식 가져

예배회복운동 나이스크(Nyskc World Mission)의 사무총장에 김은목 목사(평화교회)가 임명됐다. 23년 째를 맞이한 나이스크 운동은 전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급속히 확대돼 왔다. 동부 뉴욕에 최고선 대표회장, 서부 LA에 김은목 사무총장 체제가 잘 확립되면 전 미주 지역에 이 운동이 더욱 균형감 있게 확산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27일 평화교회에서 열린 임명 및 취임예배에서는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 외에도 대외협력실장 박재준 목사, 교회교육성장연구소장 유은식 목사, 지도자훈련원장 최태영 목사 등이 임명받고 취임했다. 예배 설교는 뉴욕으로부터 최고선 대표회장이 직접 방문해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엡1:3-6)”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며 그 택함은 불가항력적이다. 오늘 임명 받는 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

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남가주교회 변영익 중경회장, 남가주목사회 엄규서 회장, 나이스크 서부분부 최학량 자문위원 등 교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에 취임한 김은목 사무총장은 “수년간 공식으로 있던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다. 최고선 대표회장을 도와 전 미주와 세계에 예배 회복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왼쪽으로부터)최태영 지도자훈련원장, 박재준 대외협력실장, 김은목 사무총장, 유은식 교회교육성장연구소장.



임마누엘장로교회와 갈보리믿음교회가 지난달 31일(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교회”

임마누엘교회·갈보리믿음교회 연합예배 드려

미국교회와 한인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의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임마누엘장로교회와 이 교회를 빌려 사용하는 갈보리믿음교회는 지난 1월 31일 주일예배를 연합해 드렸다.

이 두 교회는 확연히 다른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임마누엘교회는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한인 이민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1888년 설립된 교회다. 현재는 영어권 회중과 스페니시권 회중이 공존하고 있다. 갈보리믿음교회는 한인 1세대이 2004년 설립한 전형적인 한인교회로 2009년 11월부터 임마누엘교회를 빌려 사용하다 2012년 4월, 또 다른 한인교회인 라브레아 커뮤니티교회와 합병해 오늘에 이르렀다.

또 서로 공통점도 있다. 일단 두 교회 모두 장로교회다. 임마누엘교회는 미국장로교(PCUSA) 소속이

고 갈보리믿음교회는 미국장로교와 선교적 인연이 깊은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몸이란 점이다.

두 교회는 1년에 수 차례 연합예배를 드리며 미국인과 한국인, 건물을 빌려주는 교회와 빌려쓰는 교회라는 세상적인 장벽을 넘고 있다. 이번 연합예배는 3개 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설교는 갈보리믿음교회의 강진웅 담임목사가 전했다.

강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계7:9-12)’란 설교에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했다. 강 목사는 “초대교회는 민족과 언어, 남녀와 신분, 지역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이 장벽과 갈등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했다”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처럼 다양성과 통일성을 띤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3개 언어권 회중들이 인사하고 악수하며 가장 가까이 앉은 이들에게 찾아가 자신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국의 대표적 노래인 아리랑 오르간 연주를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눴다.

김준형 기자



가장 어린 유아로부터 청년회장, 남녀선교회장, 교역자가 대표로 나와 기념 케익을 커팅하고 있다. (정중앙) 담임 강양규 목사.

“남가주새언약교회, 창립5주년 기념예배”

2020 비전선언문 낭독...차세대 준비와 선교 중심교회 될 터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 창립 5주년 기념예배가 31일 이 교회 본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졌다.

예배는 지난 5년 동안 남가주새언약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됐다.

강양규 담임 목사는 ‘믿음으로 살라’(행:28:16-31) 주제의 설교를 통

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7개의 2020 비전선언문을 전교인들이 함께 낭독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에 대한 문의는 213-434-1083으로 하면 된다. 참조 웹사이트는 www.new2011.org, 주소는 3407W. 6th St., LA, CA 90020.



LA다운타운 홀리스들을 섬기는 벽없는교회.

LA 다운타운 홀리스들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벽없는교회(Church without walls). 홀리스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데에는 말 그대로 아무런 장벽이 없다.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길거리 위에 있는 교회가

기에 때문이다.

이 교회는 흑인인 쿤 리 목사님이 10년 전 시작했다. 교인은 20여 명인데 그 중에 10명은 홀리스이고 나머지는 이 홀리스들을 섬기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다. 주윤경 씨 등 한인

“벽없는교회”

LA다운타운 홀리스 섬김

성도도 대여섯 명 있다. 이들은 매주 예배 후 150여 명의 홀리스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찬양과 기도,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 주 씨는 “예배 중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 예배가 중단되기도”한다며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더욱 더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주 씨는 “현재 누구나 쉽게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열린 공간 마련을 위해 기도 중”이라고 했다. 후원 문의는 지윤숙 권사(714-726-6204)에게 하면 된다.

문소현 기자

ANC은누리교회 유진소 담임목사 사임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받아

ANC은누리교회 유진소 담임목사가 지난달 27일 임시당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부산의 초대형 교회인 호산나교회의 담임 후보로 선정됐음을 밝히고 사임의 뜻을 전했다.

이 교회 당회원들은 유 목사의 결

정을 신뢰하고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ANC은누리교회에 미칠 유 목사의 사임 파장은 미미할 듯 하다. 이 교회 성도들은 유 목사의 사임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동요없이 주일 예배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장합신 교단 소속인 부산 호산나교회는 최홍준 목사가 65세에 조기은퇴하며 40대의 흥민기 목사가 후임으로 청빙됐으나, 그는 개인 사정으로 4년여 만인 지난해 중반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인 기자

결혼을 생각하는 커플, 부모, 목회자를 위한

결혼프로젝트 X 토크포럼 2016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됨 만이 아닙니다. 두 가족의 하나됨입니다.

올바른 결혼관, 의미있는 결혼식, 그리고 성경적인 가족관을 편안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결혼토크포럼을 개최합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 결혼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 그리고 가정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참석 예약은 페이스북 메시지(www.facebook.com/familydreamproject)나 전화 323.934.0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자리준비를 위해서 RSVP를 해주세요)



일시 2016년 2월 14일(일) 3:00~5:00pm
장소 Hana Christian Center

“통큰통독의 배 타고 은혜의 바다로”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2월부터 3개 프로그램 실시 성경일독학교 통독새벽기도 예수생애탐구 등 다채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상임대표 주해홍 목사)은 영적으로 성공하는 2016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3가지 행사를 애나하임 강의실에서 마련한다.

모두 ANC은누리교회 사역목사이자 미주장로회신학교 통독교수인 주해홍 목사가 직접 강사를 맡아 참석자들로 하여금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한다.

첫 테입을 끄는 행사는 미주두란노 세미나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기 성경일독학교'. 2월 11일부터 16주간 매주 목요일에 강의가 진행된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전반(오전 10시-오후 12시20분)과 오후반(오후 7시-9시30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강의는 살아 있는 다이내믹한 신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구별된 삶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면서 통전적, 연대기적으로 읽게 해 마친 후에는 훌쩍 자란 자신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 회비는 100달러이며, 교재 '통큰통독 성경'(두란노 간)은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두 번째 행사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라는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을 붙잡고 살려는 이들을 위한 '90일 성경통독 새벽기도회'다. 2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일(주일 제외) 열리며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5시30분-6시30분, 토요일 오전 6-7시.

보통 15-20분의 강의를 이어 40-45분간 하루치의 본문을 전문 성우들의 낭독을 들으면서 읽는 방식으로 참여한 뒤 각자 형편에 따라 개인 말씀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역시 통큰통독 성경을 사용해 성경 전체를 사건 발생 흐름에 따라 일독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유익이 있다. 간단한 묵상용 교안을 제공하지만, 회비는 없다.

세 번째 행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통큰통독'의 저자인 주해홍 목사.

주제로 열리는 '예수 생애 탐구'다.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참석자들은 제1부에서 시작해 제4부를 마치기까지 각 파트별로 12주씩, 총 48주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흥미진진한 탐구여행을 하게 된다.

강의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까지이며, 첫 강의는 2월 13일 시작된다. 회비는 각 파트별로 50달러이며, 교재는 강의시간에 배부한다.

주해홍 상임대표는 "많은 교인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성경을 꿰뚫어 보는 통전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복음을 중심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뤄지는 예수 생애 탐구 강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관계회복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정부 감사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자로 사역하기도 했던 주 목사는 약 20년간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준비한 끝에 '통큰통독'을 저술, 한인교회 및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돕는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50여 차례의 단기 및 집중강의, 10여 차례의 16주 전체과정 강의를 한 바 있는 그는 OC교협이 3월 7-9일 은혜한인교회에서 목사, 사모들을 위해 주최하는 성경통독 집중강의에 강사로 나선다. 또 4월 중순 볼티모어 베델교회에서 5일간 통독 세미나를 가진 뒤 6월에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에서 곧 출판될 스페니시판 통큰통독으로 현지인 말씀훈련을 5일간 실시하고 한국 주요 도시 순회집회를 떠날 예정이다.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의 주소는 1661 N.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웰스 파고 빌딩 2층)이며, 문의는 714-726-8887 박용일 목사에게 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ezrabiblereading.com을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장섭 전문위원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장남 앨런, 약혼자 태미, 강 전 시장, 부인 강원희씨, 차녀 앤지, 사위 로렌스.

“한인신자들, 美선거 적극 참여해야”

강석희 전 시장, 주상원 민주당 공식후보 교회들 방문 지지 호소-유권자등록 부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증 받은 능력을 바탕으로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도와달라고 호소할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오렌지카운티안장로교회 집사)이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제29지구에서 출마를 선언한 강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오렌지시 소재 오렌지카운티 당사에서 개최된 가주 민주당의 '공식 후보 선출대회'(pre-endorsement conference)에서 지구 대의원의 90%를 획득, 9%에 그친 경쟁자 조시 뉴먼 후보에 압승했다. 3월 후보 등록을 앞둔 강 전 시장은 오는 26-28일 산호세에서 열리는 가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후보지명을 받게되며 예비경선에서 70% 이상 득표하면 공식지지를 받게 된다.

강 전 시장은 앞으로 당의 지지하에 보다 효과적인 선거자금 모금과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비스트, 이익단체 등의 지지와 정치자금 역시 민주당이 소속 유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 표를 부탁하는 공식 후보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의 지지 없이도 오는 6월 7일 열리는 예선(프라이머리)에 출마할 수는 있으나 캠페인에서 불리하다. 강 전 시장은 "민주당의 유일한 후보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제29지구에서 저만 당의 공식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발로 뛰는 캠페인으로 주의회에 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예선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유권자들은 당적과 관계없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최상위 득표자 2명이 11월8일 열리는 본선에 진출, 진검승부를 벌인다.

주의회의 의원 정수는 상원이 40명, 하원

이 80명이다. 상원은 4년 임기 3회, 하원은 2년 임기 6회로 임기 제한이 있다. 어바인 시의원과의 직선 시장을 두 차례씩 지낸 강 전 시장이 이번에 나서는 지역도 공화당 현역이 임기 제한에 막혀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이다. 공화당에서는 초선 주하원의원인 타이완계 링링 쉐를 내세워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주상원 제29지구는 오렌지(라팔마, 사이프러스, 풀러튼, 브러아,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오바린다, 스탠튼, 애나하임의 58%, 부에나파크 일부), LA(다이아몬드라, 로렌하이츠, 월넛, 웨스트코비나 일부), 샌버나디노(치노힐스 일부) 등 3개 카운티를 포함하는 선거구로 유권자의 약 74%가 OC에 집중돼 있다. 인구구성은 라티노 37%, 백인 31%, 아시아인 27% 등으로 소수계가 다수. 총 등록 유권자는 43만명 중 아시아인은 약 9만으로, 한인 1만 6,000여 명, 중국인 2만 4,500여 명, 필리핀인 1만 6,500여 명, 베트남인 1만 5,000여 명 등이다. 당적은 공화당 37%, 민주당 34%, 무당파 25% 등으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저인망식으로 민심을 공략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강 전 시장의 판단이다.

“수개월 전부터 한인교회들을 방문해美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는 그는 “가능한 한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려고 한다”며 “한인사회의 가장 큰 보팅 블록(voting block)이 교회다. 단결한다면 누구라도 당선시킬 수 있는 큰 힘이 한인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회들이 꾸준히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권장한다면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며 “한인 정치인 배출은 커뮤니티의 권익을 옹호하고 한인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등 여러 혜택을 끌어내는 데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문의는 www.kangforsenate.com.

김장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통큰통독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강의안내

강사 **주해홍 목사** 통큰 통독(두란노) 저자
미주 장로회 신학교 통독 교수

www.ezrabiblereading.com

90일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 119:147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 119:28

아침 5시 30분부터 6시 30분 까지 60분동안 15-20분 강의와 40-45분간 일일 본문의 본문을 전문 성우들의 낭독을 들으며 읽습니다. 그 후 각자 시간에 따라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됨을 체험하십시오.

▶ 일시: 2016년 2월 13일~5월 14일
월-금 아침 5시 30분-6시 30분
토요일 아침 6시-7시 *주일은 없음

참가비 없음

예수 생애 탐구 너는 나를 누구라-하느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s on Jesus)” 히 3:1

4복음서를 예수님 생애별로 재 배열하여 예수님을 깊게 공부합니다.
4부로 나누고 각부를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2시간씩 12주간 진행합니다.

▶ 일시: 2016년 2월 13일~4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참가비 각부 50불

제 5기 OC 성경 일독 학교 16주 과정

2016년도 통크게 통독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벗겨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2,13

▶ 일시: 2016년 2월 11일 매주 목요일
오전반 10시-12시 20분
오후반 7시-9시 30분

참가비 100불
교재비 별도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주소 1661 N. Raymond Ave. # 265, Anaheim, CA 92801

문의 박용일 목사 714-726-8887

“작아서 아름답다”

두 번째 열린 삼삼오오 찬양예배

지난달 31일 작은교회의 연합찬양예배 ‘삼삼오오 찬양예배’가 두 번째로 새창조교회(담임 김관중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찬양 예배에는 멀리 샌버나디노로부터 찾아온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함께했다.

광풍과 폭우가 몰아친 기상악화로 전기까지 끊기자, 주최측은 촛불을 켜고 찬양예배를 준비했다. 악기와 음향도 셀팅해야 했지만 단전 여파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창조교회 찬양팀의 인도로 시종일관 은혜로운 찬양이 이어졌다. 구원 받은 백성들은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 그 자체였다. 그렇게 예배는 시작됐고, 마원철 목사(리퍼어서번트 대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빌 2:3) 주제의 말씀선포를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낮고 천한 인간의 말 구유



두 번째 ‘삼삼오오 찬양예배’가 지난달 31일 새창조교회에서 열렸다.

에 오셨다”며 “그 한가지를 기억한다면 가난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이도 2부가 시작되자 끊겼던 전기도 다시 들어오고 성도들도 보다 더 큰 기쁨으로 화답했다. 2부는 ‘8090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감동과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다하지 않으시고 또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신다. 이날 드러진 찬양예배는 세상에서 드러진 그 어떤 찬양예배보다도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였다.

1부 예배는 허번 목사(새로워지는교회 담임) 기도,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 담임) 환영사, 이경호 목사(영생장교회 담임) 색소폰 연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김관중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한편, 세 번째 ‘삼삼오오 찬양예배’는 오는 5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문의는 323-934-0058다.

이인규 기자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⑨

<여리고 편>

요르단 강 서안에 있는 도시. 성경에 기록된 지명은 여리고이며 현지 아랍인들은 아리하라고 부른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졌으며, 지중해 해면보다 25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구약성경 시대에는 각종 과실수(특히 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로 예부터 방향(芳香)의 성읍 또는 종려나무 성이라 불렀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BC 14세기경 모세의 승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함락된 성이며, 신약에 따르면 헤로데스 왕의 겨울궁전이 있던 곳이다. 본래 요르단 영토였으나 1967년 6일 전쟁 때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후 줄곧 이스라엘이 관장하고 있다.

1. 사 해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염호이다. 요르단 강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지만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다만 건조 기후로 유입량과 같은 양의 증발이 일어난다. 때문에 염도가 33%로 일반 바닷물의 5~6배다. 누구라도 가라앉지 않고 뜨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바다는 염분이 높아서 거의 모든 생물이 살지 못해 사해(死海)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인체에 유익한 각종 광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고 있다.

3. 쉘렐라

쉐펠라(Shephelah)의 어원은 ‘낮은 땅’으로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의 구릉지대를 말한다. 산지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블레셋인에 대한 최전방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항상 피가 흐르는 전쟁터였다고 전해 내려온다. 천혜의 요새 맞사다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이었다. 73년 로마군의 공격에 맞선 유대인군은 이곳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다 최후를 맞이하였다.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한 헤롯 왕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계속>

문의: 엘에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매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2. 쿨 란

사해 북서쪽에 있는 건조한 평원이다. 주변 11개 동굴에서 800여 개의 사해 문서(the Dead Sea Scrolls, 구약성경의 필사본)가 발견됐다. 유대교의 한 파인 에세네파 사람들의 주거지역으로, 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해 문서를 남긴 것으로 추측된다. 사해 문서는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구약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에스더 서만을 제외하고 구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약 주석, 신학서 등도 함께 발견되었다.



전도축제에서 (왼쪽으로부터)김호민 목사, 장경동 목사, 이동준 목사가 기념촬영을 했다.

“행복나눔 전도축제”

장경동 목사 초청...엘바인아름다운교회에서

행복나눔 전도축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엘바인아름다운교회(담임 이동준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관능교회 김호민 목사, 문막드림교회 장순직 목사가 참여했다.

문소현 기자



출판 감사예배를 마친 축하객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美이민생활 40년”

정지운 목사 출판 감사예배 열려

정지운 목사 美이민생활 40년을 고스란히 담아낸 ‘정지운의 발자취 미국 이민생활 40년사’ 출판 감사예배가 지난달 30일 성서장교회(담임 김병용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목사는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고문 김문희로부터 축하패를 증정받았다.

나무엔 쉽 미니콘서트

한국 CCM 사역자인 ‘나무엔 LA 방문 미니 콘서트’가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월 11일(목) 오후 7시 (하나크리스천 센터)
- *12일(금) 오후 7시 30분 (또감사선교회)
- *13일(토) 오후 6시 (COF 부모모임, 다이아몬드)
- *14일(주일) 오전 11시 (인랜드우누리교회 특송)
- *14일(주일) 오후 2시 (LA비전교회)
- *문의: 323-934-0058



매니저 김상준.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혼돈의 시대 목회자 리더십 회복 위한”

미주인터콕 목회자 비전캠프 2월 16일부터 3박4일간

미주인터콕 주최 목회자 비전캠프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팜데일에 위치한 엔젤레스 크레스트 크리스천 캠프(20075 Angeles Crest Hwy, Palmdale, CA 94550)에서 열린다.

이사장 송병기 목사는 “불확실성과 혼돈과 영적 어둠이 심화되어가는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도전 앞에 교회는 갈수록 무력해지고 있다.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들의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이 캠프에 목회자들을 초대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박희민 목사, 송병기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과

인터콕의 최하울 분부장, 강요한 디렉터, 임이스마엘 사역코디네이터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캠프의 주요 강의 제목은 시대의 표적, 시대환경과 세계체계, 이슬람 현상과 글로벌 지드, 세계 영적 전쟁과 예루살렘의 평화, 전략적 단기선교와 전방개척선교, 사역과 은사-전략적 은사 배치, 영적 리더십과 부흥, 선교적 교회와 교회성장 전략 등이다. 등록비는 250달러, 문의는 양규도 목사(213-268-1503, pastorintercp@gmail.com)에게 하면된다.

“기독교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 3부예배 오후 1:00
-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749-4500 / F.(213)749-6700

“기독교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동양선교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28~29)

- 1부 아침 예배 오전 8:00~9:00
- 2부 전통 예배 오전 9:30~10:30
- 3부 열린 예배 오전 11:00~12:00
- 4부 영어 예배 오후 12:45~1:30
- 5부 청년 예배 오후 1:30~2:45
- 수요일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박형은 담임목사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성령에 이끌리는 공동체

열왕기하 6: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열왕기하 6:1-6

1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2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취하여 그 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3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4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이니이다 6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본문의 내용은 BC 84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면서 미신과 우상을 섬겨 사회가 여러 모양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 선지 학교 건립

그 당시 선지 학교라는 것이 성경의 소개대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길갈, 벰엘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 인접한 도시로 여기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지자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성령과 진리로 무장되던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선지 후보생 생도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직간접으로 역사해서 사방에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하여 이 선지 학교로 모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의 시설이 지금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두 세 배로 생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생활공간이 상당히 비좁아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들이 생각할 때 '선지 생도가 점점 늘고 있으니 교실과 방을 크게 넓히고 식당도 확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믿음 좋은 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액의 현금을 하게 하여 우리 시설을 크게 확장 이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요즈음 선교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 궁상맞은 예배 처소 사진을 찍어서 좀 힘 있는 교회라고 여겨지는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것이고, 우리의 형편이 협소하여 너무나 고생스럽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통하여 현금하게 하고, 멋지고 크게 시설을 확장하게 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하라. 너희 문제이니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니 너희가 하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염치 없는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요단강 독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직접 선지학교를 크게 지어 이전하자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교장 되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기 장소가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크게 지어 옮겨오면 합니까?' 그랬더니 가서 그렇게 하라고 승낙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선지생도들의 마음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장 선지자인 엘리사의 마음도,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선지 생도들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가 함께 요단에 이르러 나무로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4-5절에 언급된 "나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 다른 의미입니다. 4절에 언급된 "나무"라는 말은 "에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침"은 손가락보다 더 굵은 것으로 팔목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있는 "나무"는 "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굵은 나무를 뜻하는 단어로 기동감, 들보감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 굵은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로 수십 번 그 나무

밑둥치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나무를 찍다가 보니 빌려온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요단강에 빠진 것입니다.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생도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당황한 선지 생도는 스승인 엘리사에게 빌려 온 것이라며 다급하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 바닥에 잠겨 있다고 걱정하는 선지생도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무 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를 강에 던지자 스스로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에게 "취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생도는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도끼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3.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목적과 교훈

이것은 무슨 비방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왜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겠습니까?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면 그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지생도들이 집중하게 되었을 때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선지생도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될 후보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체험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도끼자루 빠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일도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선지생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능력을 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인 엘리사에게 절대 순종하고, 훈련을 받으며, 기도에 더욱 힘쓰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다. 그리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교육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 선지생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도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목자나 양떼가 같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선지생도들과 선지자 엘리사처럼, 우리 각 교회들도 목양기간에 같은 성령으로 이끌리며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섬기자는 목적으로 쓰임 받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음으로 성령 받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장재효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목회 57년 돌아보니 불초한 종 쓰신 하나님 은혜뿐...”

목회 인생 반 세기를 넘겨서도 아직 전 세계를 돌며 제자를 세우는 장재효 목사 (서울 성은교회 담임)

주제: 구령성과 위한 바른 목회 특별세미나

- 시간 : 2016년 2월 15일(월) 오전 10:30
- 장소 : JJ 그랜드 호텔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 Tel : (213)383-3000
- 집회 문의 : (213)739-0403, (213)434-1170
- 주최 : 성은 바른목회 연구원

* 자리예약 필수(식사 제공)



장재효 목사
서울 성은교회 담임

후원 : 남가주한인목사회, 기독교방송, 복음방송, 남가주여성목사회, Cts 기독교방송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한국어 / 영어 Bilingual 필수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 출 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 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담교회' 담임목사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백만 명 구령운동(救靈運動)

1907년 대부흥의 물결이 2, 3년 지나 부흥의 열기가 차차 식기 시작했다. 교인들의 열성이 기울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일제가 기왕에 시작한 한국 식민화를 가속했다. 급기야 일제는 1910년 8월 한국을 강점 병탄하여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모든 사람의 좌절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때 낙담하고 있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일깨웠다. 이에 따라 부흥운동이 재개됐는데 이 운동이 '백만명구령운동(The Million Souls for Christ)'이다.

이 운동은 1909년 개성에서 감리교 선교사 스톡스(M.B.Stokes), 갬블(F.K.Gamble), 리드(Miss W.T.Reid) 3인 회동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당기기 위해 사경회와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갖기로 협의했다. 이들은 한국 교인 몇 사람과 함께 산상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 참석했던 선교사들은 1909년 9월에 개최한 남감리교회 연차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20만 명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로 특별 집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연차대회가 폐회된 후 바로 열렸던 북음주의선교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the Evangelical Missions)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공의회에 참석한 위 세 선교사는 공의회 전도 목표 채택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백만 명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로"였다. 여기서 백만 명 구령운동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불과 몇 만 정도에 불과했던 때 백만 명은 확실히 실현하기 어려운 숫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전 국민을 상대로 전도운동을 벌이기 위해 그런 목표를 정하고 추진했다.

이때 마침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 강연을 하던 부흥사였던 챔프먼(Wilbur Chapman)과 알렉산더(Charles M.Alexander) 일행이 내한했다. 이들은 즉시 백만 명 구령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먼저 선교사들을 상대로 5일 동안 전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떠났으나 일행 중 한 사람인 데이비스(George T.Davis)는 한국에 남아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 집회를 계속했다. 일제로



김인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부터 모든 것을 빼앗긴 민족은 경상도의 한 관리가 말한 대로,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달리 아무 도리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당시 많은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1910년 선천에서 모인 장로회 제 4회 독노회에서 백만 명 구령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각 교회가 10월 24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기로 결의하고 7 대리회에서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이 일을 추진케 했다. 이 날은 한국이 일제에 병탄된 지 꼭 20일이 지난 때다. 이 운동은 한국에서 전도를 위해 남녀노소, 학생과 평신도, 교역자들이 전심전력하여 목표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전국적 운동이다.

이 운동 기간 동안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 있다. 이는 가난한 교인들이 이 운동을 위해 물질적으로 헌금할 수 없어, 날(日)을 바치는 소위 '날연보'(日捐簿, Day Offering)가 시작된 일이다.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라 했는데, 당시 연보 즉 헌금을 할 수 없었던 가난한 교인들이 돈이 없어 유급 전도사를 파송할 수 없는 곳에서 신자들 자신이 생활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내어 쪽복음서와 전도 문서로 전도했다.

이 운동은 신자들 간에 큰 호응을 얻어 평양에서만 1천 명 신자가 연 2만 2천 일을 연보했고, 황해도 재령에서는 1만 일이 연보됐다. 비록 북쪽에서처럼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남부 지방에서도 이 운동이 일어나 군산 지방에서 850일이, 전주에서는 3,349일이 연보됐다. 이렇게 연보된 날 수가 이 기간 동안 포함 10만 날이 넘었다.

이 날연보에 대해 선교사들이 영문으로 발간했던 월간지 「코리아

미션 필드」(The Korea Mission Field)에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됐다. "고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도급 10만 날을 이 사업에 바쳤는데 지난겨울에 개인전도에 사용한 일수는 7만 6천 날이고, 금년 가을에도 수백 명의 한인 전도인들이 가호호를 심방하는 활동과, 대 집회에 출석한 구도(求道)인들과의 개인적 접촉을 위해 한 달을 온통 바쳤다. 수백 만 매의 전도지와 한인 신자들이 대금을 내고 불신 동포에게 70만 권의 마가복음을 무료로 배부하면서 복음서를 읽고 믿으라는 간곡한 권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 치고 심방 받지 아니한 가정의 거의 없었고 심방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천 명의 한국인이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

위의 글은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며, 시간과 물질을 바쳤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연말에 그 결과를 정리했을 때 결산자 통계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알게 됐다.

물론 백만 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평양에서 사역하던 북장로교회 베어드(William Baird) 선교사는 "온 교회가 굳센 믿음과 유례없는 열성으로 이 운동에 가담했다. 복음을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권유 받았고, 또한 신자가 될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모든 일이 다 알려지게 되면 백만 명 이상의 영혼이 이번 백만 명 신자화 운동이 있던 기간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그의 말과 같이 백만 명이 결신은 하지 못했다 해도, 백만 명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언젠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계속해야 될 것을 확신했다. 백만 명 구령운동은 민족 복음화의 첫 걸음이었으며, 이 정신은 후대에도 계속 그 맥을 이어오게 된다.

하나님의 설계하신 생물

하늘을 나는 새는 놀라운 공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벼운 무게를 위하여 뼈는 비어 있다. 바람을 가르고 날기 위하여 온몸이 가벼운 깃털로 덮여 있다. 몸 안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어 무게를 줄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몸이 젖지 않도록 기름이 몸에서 나온다. 머나먼 길을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도 있는데, 경이로운 정도의 먼 거리를 비행한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새들 중에서 신기한 새 중의 하나는 딱따구리다. 딱따구리는 1초에 10번 이상 나무를 쪼아대는데, 그 부리가 쪼개지지 않고, 그 눈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두개골과 뇌에는 스폰지와 같은 완충 부분이 있어서 머리를 보호하고, 나무를 찍기 직전 1000분의 1 초 전에 눈을 감아 눈이 튀어나오지 않게 방지한다.

네 발톱으로 나무를 굳게 잡고 나무를 파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은 긴 혀다. 벌레를 잡아먹는 끈적끈적한 혀는 너무 길어서 부리 안에 저장할 수가 없다. 딱따구리는 긴 혀를 두개골의 양옆을 돌아서 오른쪽 코에 박혀있다.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혀는 오른쪽 코에서 나와 두뇌를 돌아서 구멍으로 부리 속에 들어온다. 그리고 밖으로 길게 내밀어 곤충을 잡아먹는다.

이 공학적인 조류를 설계하신 분이 있을까? 이 경이로운 구조를 만든 분이 설계도도 마련하셨을까? 물론이다.

하나님은 고도의 설계도를 딱따구리의 몸속 세포의 핵에 유전자로 만들었다. 1,000페이지의 책 1,000 권에 해당하는 많은 정보들이 아미노산의 배열을 통하여 생긴 DNA의 형태로 핵에 내재하고 있어서 그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딱따구리가 만들어진다. 딱따구리의 새끼는 정확하게 부모를 닮고 다시 알에서 깨어나온다.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도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고도

의 지적인 설계가 처음부터 딱따구리를 딱따구리로 만든 것이다. 이것에 오류가 있으면, 제대로 된 딱따구리가 나올 수 없고, 이러한 유전자는 정확히 부모의 것을 복제하게 되었다. 염색체가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고 창조된 이래로 동일한 염색체를 유지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경이로운 생물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부리와 혀와 나무를 찍는 근육과 날카로운 발톱을 주셨다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많고 크시겠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교하게 설계되었고, 그 설계하신 분의 능력은 크고도 놀랍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이때를 위함이다.

새들을 이처럼 정교하게 창조하신 분은 우리도 정교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최고의 공학자다.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다. 식물과 동물, 즉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시며, 심미안을 가지셨다.

정교한 수학과 생물학과 미학적 기술은 놀라울 뿐이며, 이는 우리의 탄성과 즐거움과 놀라움과 경외함과 찬송을 불러 일으킨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이 온 생물을 지으셨다.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
있을지언데! 그대로 되나리! 죽았더리!
동역자님의 목회는 **주안에서**
됩니다!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

낮은 자존감 짙은 **열등의식**으로 **시골 30명목회**가 꿈이었던 이영환목사의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의 원동력인 핵심 말씀을 정리한
평신도 말씀훈련 교재 **「예수님의 기도학교」**
20개월만에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해외 26개국 선교사님들을
만족케한 검증된 세미나



강사 이영환 목사

- 한밭제일교회담임
-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게”라고 외치는 목회자
-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의 저자

주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들!

지난 1년 8개월동안 한국교회 1천여교회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26개국의 선교사님들께서 “장자권” 전국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펼쳐 가실 목회현장이 **오직말씀, 오직기도, 쉽고가볍고 재미있는 행복복회,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기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는 “기도목회”가 해답입니다. **“말씀과 기도” 목회만이 본질**인데 2016년 새로운 목회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 때에 “기도편 목회자세미나”를 통하여 섬기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불처럼 뜨거워지고, 목회자의 영성을 순수하게 처음사랑으로 뜨겁게 유지**시키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목회의 복을 누리고** 금번 기도세미나 말씀훈련교재를 통해 **“뜨거운 기도와 강력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편 목차

- 제 1과 기도,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따라하라!
- 제 2과 기도, 반드시 초대교회를 배우고 따라하라!
- 제 3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오래하는 습관을 가지라!
- 제 4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부르짖으라!
- 제 5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깊고 은밀하게 하라!
- 제 6과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라!
- 제 7과 기도,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
- 제 8과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제 9과 기도,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다!
- 제 10과 기도,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 제 11과 기도, 하늘나라에서 VIP로 취급됨을 주목하라!
- 제 12과 기도, 믿음의 절대 파워다!
- 제 13과 기도, 모든 문제의 완전 해답이다!
- 제 14과 기도,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다!
- 제 15과 기도, 사랑의 대화임을 잊지 말라!
- 제 16과 기도, 사명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 제 17과 기도, 반드시 먼저 회개를 동반하라!
- 제 18과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라!
- 제 19과 기도,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 제 20과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 2016 미주목회자 “기도편” 장자권 세미나 일정안내

일 시 : 2016년 2월 29일 (월) - 3월 2일 (수)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에 일정표를 확인해주세요.

강 사 : 이영환 목사 (한밭제일교회 담임)

장 소 : UBM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등록비 : \$ 100.00

* 주교재와 세미나 기간동안의 식사는 등록비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됩니다.

* 목회자 부부로 등록하실 경우, 등록비는 동일합니다. (목회자부부 2인 : \$ 100.00)

[등록방법] 인터넷 : UBMCHURCH.COM

전 화 : 714-634-8360

문 의 : 714-634-8360 / 714-331-1755

714-501-1337

이메일 : USA.SONSHIP@GMAIL.COM

주 최 : 미주 장자권 세미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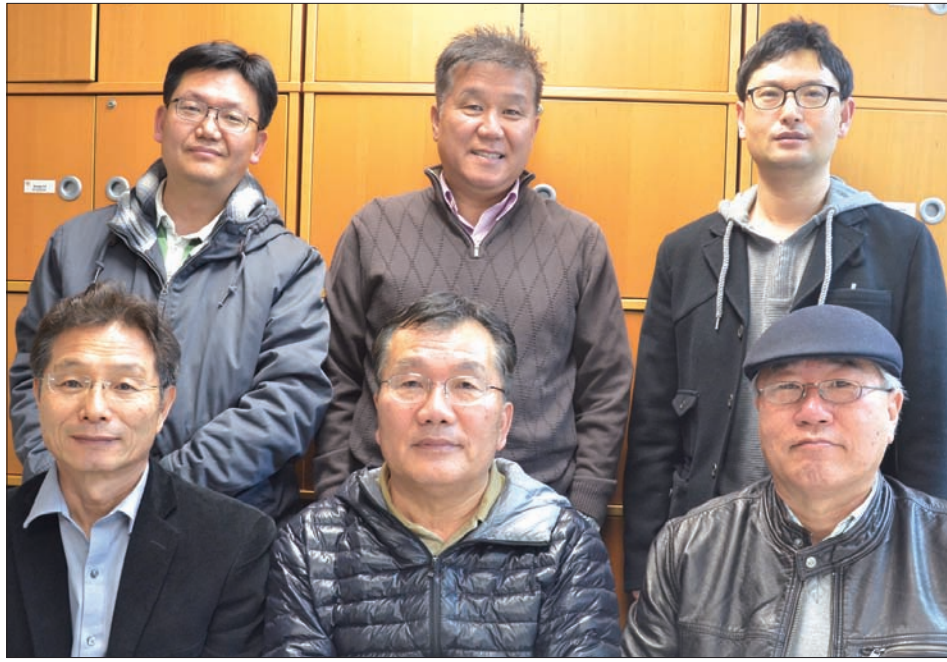
협 찬 : PIXELL GRAPHICS / JP Toner & Ink Service

남가주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은 오는 4월18(월)-23(일) '국제 23기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가 주강사를 맡는 이 배움의 장은 이민교회 담임목사 및 교역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 교회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제자들을 키우고 승천하시길 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극히 높은 명령을 주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지난 1988년 탄생한 이래

제자훈련에 올인해 오면서 최대 이민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최근 수년 새 제자훈련(2년 과정)을 몸과 삶으로 경험한 이 교회 집사6명과 좌담회를 통해 제자훈련의 본 모습을 알아본다. 지금까지 수많은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타는 가슴을 갖게 하고 부흥의 DNA를 심어준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dmmi@sarang.com, (714)635-3000으로 하면 된다. 등록비는 숙식 및 교재 포함 390달러이며, 마감은 3월 21일이다.

“예수의 온전한 제자 키우는 것이 교회 사명”

남가주사랑의교회 제자훈련 졸업생 좌담회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집사들은 한결같이 “제자훈련을 강추하고 싶다”고 말한다.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최원배, 이치호, 오다니엘, 이재일, 장기준, 유승현 집사.

-본인의 신앙적 배경, 제자훈련 받기 전의 영적 상태, 받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면.

▲최원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내비게이토선교회 핵심 멤버로부터 이미 양육받은 상태에서 이 교회에 왔다. 예배의 은혜에 많은 눈물을 흘리다 차근차근 모든 배움의 과정을 밟으려는 의도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이치호: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출신으로 교회에서 성장했으나 이민 온 후 출석한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옮기게 되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예배 찬양이 너무 좋아 그동안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다. 타의로 교인등록을 했는데 '훈련 안 받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훈련에 돌입했다. 자격 미달이었으나 인원이 모자라 턱걸이로 입학했다.(웃음)

▲오다니엘: 중가주에서 남가주로 이사온 뒤 영적 침체를 겪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도 많이 읽었기에 모든 게 익숙하고 교회마다 그 나뭇잎 그 밭처럼 느껴졌다. 이곳에 와서도 처음에는 제자훈련에 생각이 없었으나 아내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다.

▲이재일: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온 뒤 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통해 세상이 아닌, 성경이 나의 텍스트복음을 알게 되었고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섬겨야 함을 배웠다. 제자반을 마치고 전체 훈련생이 가족과 함께 3박4일 멕시코 선교를 갔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훈련 후 고등실업자가 되지 말라”던 리더의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장기준: 한학자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다. 군대에서 만난 친구 권유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 싸우는 모습만 보고 안 나가게 되었다. 이민 와서 몇 군데 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이 교회에 온 뒤 등록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먼저 한 아내를 따라 나도 시작했다. 나이가 많아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다. 화장실 청소 등의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했다.

▲유승현: 이민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새일꾼이라는 제자훈련 전 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억지로 끌려가는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다.

-훈련받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장기준: 모두가 바쁜 이민생활 아닌가. 맞벌이 하면서 제자훈련에 임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으나 동기 훈련생들이 늦둥이 자녀 라이드도 해 주는 등 도와주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성경암송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하니가 되더라.

▲유승현: 주일에 모이는 제자반에서 배웠는데 리더가 QT를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셨

다. 당시 출근하려면 새벽 4시50분에는 기상해야 했는데 매일 새벽QT를 하기가 힘들었다. 덜 바쁜 시간에 QT하면 안 되느냐고 리더에게 물었는데 그럼 새벽 3시50분에 일어나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다음날부터 3시반에 기상했다. 자신과의 싸움이 힘들었지만 결국 QT를 통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고, 그 훈련이 쌓여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

▲최원배: 강력한 리더를 만나 시간폭탄을 맞았다. 1주일간의 교회 차원의 훈련생 새벽기도가 끝나니 리더가 40일 새벽기도를 하자고 한다. 그것도 일반인들이 오는 새벽 5시 20분이 아니라 4시30분에 와서, 3시50분에는 침대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교회 전체의 새벽기도가 끝나고도 훈련생만의 후집회를 40분씩 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환자의 말이 접수가 안 되고 운전하다 졸기 일수였다. 40일 새벽기도 후에는 교회 전체 특별새벽부흥회가 이어졌고 그 다음엔 우리 제자반의 연말새벽기도, 신년새벽기도가 시작됐다. 토요일에 종일 중보기도학교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같은 훈련을 받고나자 나의 기도가 변했다. 기도하니까 기도할 것이 더 많아지더라.

▲이치호: 일주일에 2개의 QT를 훈련생 웹 사이트에 올려야 하는 일이 처음에는 고역이었다. 타자를 칠 줄 몰라 처음에는 무려 6시간이 걸렸다. 나중에는 3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어서 살 만했다. 50년 이상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리더가 목장껏 성경본문을 읽으라고

하는 것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훈련생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알게 되었다.

-제자훈련으로 인해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유승현: 영적 생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적으로 성경에 접근했던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는 열망이 내 안의 옛사람과 늘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도 큰 소득이다.

▲장기준: 이단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신감이 생겼다. 현재 사업을 하는데 멘토에게 교회 출석을 권유하고 감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푸드코트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할 때도 전과는 달리 꼭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동료 훈련생의 아내들이 모여 남편의 변화를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 주는 좋은 시간이었다.

▲최원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대학시절 양육을 받을 때 '영적 재생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으나 실천이 힘들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하며 발버둥치는 동안 해답을 찾았다.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왜 남가주 사랑의교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없었던 인생의 블루프린트 또한 갖게 됐다.

▲이치호: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계속 밖으로 나돌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던 나에게 아내도 별 기대를 안했다. 하지만 훈련받는 동

안 앞의 형제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도전받아 나도 서서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갔다. 결국에는 위기를 겪던 우리 가정도 회복됐다. 교회의 부부 프로그램인 '사랑의순례'에도 참석하고 이제는 설거지까지 해 주게 됐다. 딸들이 크게 놀라더라. 비로소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율법적인 믿음이었기에 교회 사랑의 마음이 없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는 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자가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 주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도 있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재일: 제자훈련이 트렌드화 되어 목사님들이 선입견을 갖고 계실 수 있다. 어떤 커리큘럼이 교회의 부흥이나 교인들의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훈련생들은 결국 리더의 솔선수범, 즉 자신부터 새로워지는 모습에서 배운다. 책만 갖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제자훈련이 아니다. 모범을 보이겠다는 각오로 시작하셔야 한다.

▲유승현: 목사님들께 제자훈련을 강추해 드리고 싶다. 훈련이란 말의 어감 때문에 기피할 수도 있는데 훈련과정은 너무도 중요하다. 준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면 평생 만지지 못했던 신앙의 실체를 만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은 목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4월의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엑기스를 맛볼 절호의 찬스다.

▲장기준: 제자훈련이 육한흠 목사님의 브랜드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한 사람을 제자훈련으로 인도했는데 골초이자 술고래였던 그분의 얼굴이 흰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철저히 교육을 임하는 그분은 때로는 교회에 와서 남몰래 고장난 것을 고쳐놓고 가기도 한다.

▲최원배: 제자훈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형식과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자훈련은 모든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애프터 서비스 식으로 자신이 한 번 훈련시킨 사람을 평생 팔로워해 주겠다는 희생적인 마인드가 절대로 필요하다.

▲오다니엘: 그저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사는 일은 기도, QT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는 정말 힘들다. 평신도에게 자생능력을 길러주는 일, 그게 곧 제자훈련이다.

김장섭 전문위원

“리더의 모범과 기도 QT 통해 큰 변화 경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4월18~23일 개최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p> <p>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시역 가능 목회학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699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aeu.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준 특선: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p>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p> <p>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심포지엄 개최... 4개 세션 10개 분과 발표 진행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상임대표 이종윤 목사)이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교회의 대응’ 심포지엄을 2일 서울 정동제일교회 밴앨름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된 심포지엄에서는 ‘탈북민 지원과 북한 변화를 위한 노력’,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의 북한 인권 의식 확신을 위한 노력’,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각 분과 보고와 종합 토의’ 등 4개 세션을 통해 총 10개 분과의 발표가 있었다.

개회예배에서는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롬 9:1-5)’을 제목으로 이종윤 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가 설교했다. 그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반을 둔 자유·정의·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라는 조건부 복”이라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우리의 통일이념이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쓰시는 나라라는 믿음과 책임의식을 갖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시 33:12), 그리고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나라이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가져

야 할 보배 중 보배는 무엇보다 복음이라고 역설했다.

서경석 목사(나눔과기쁨 이사장)는 1세션에서 ‘교회의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한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창립하고 1년간 1백억 원에 달하는 모금을 해서 옥수수를 보냈는데, 탈북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했다.

서 목사는 “7년 넘게 북한 돕기에 전념하다 결국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탈북동포 돕기 운동으로 전환했다”며 “그러나 통일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굶주린 북한 동포들, 특히 어린이들을 더욱 도와야 한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우려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 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돕는 길로 가야 하고, 이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의무이다. 한국교회 내에 ‘직접 돕기’ 열풍이 다시 불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논찬은 마요한 목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맡았다.

이대웅 기자

“전병욱 목사 ‘공직정지 2년·강도권 2개월 정지’ 판결”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 부적절한 처신 인정·삼일교회는 반발



전병욱 목사.

전병욱 목사(흥대세교회) 성추행 사건 판결이 공개됐다.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은 전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을 명령했고, 기간 중 ‘강도권 2개월 정지’와 사과문을 교단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OO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 의거,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국은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밝히고, “평양노회 재판국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전했다.

박용국 기자

다만 “전 목사의 ‘여성도 추행권’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확인된 일부 사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재판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이나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1억원의 성중독 치료비 지급에 대한 건 등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삼일교회 한 시무장로의 양심고백과 상대측이 증거제시를 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목사 사임 후 장로 사이에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전 목사와 약속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2009년 문제가 처음 시작된 이후 7년 만에 나온 판결에 대해 삼일교회 측은 반발하고 있다. 교단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전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은 아무 소용 없고, 임시당회장 체제로 교회가 운영되더라도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삼일교회 측은 “대중 예상된 결과”라며 ‘자유와공의를위한TF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재판 상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비전 ‘2016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캠페인’ 전개”

기독교 국제구조개발기관 글로벌비전(이사장 이정익)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캠페인’ 및 ‘사순절 유유저금통 캠페인’을 진행하여 제 3세계 빈곤가정에 긴급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전 세계 8억 4,200만 명이 기아상태에 놓여 있고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 인구비율은 14.3%에 이른다. 매년 5살 이하 어린이의 45%인 약 310만 명이 영양부족으로 사망하며, 개발도상국의 6천 6백만의 미취학 아동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학교에 간다.

본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선교 후원금은 위와 같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3세계 빈곤 가정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긴급식량지원 및 학교

급식비로 사용된다. 특별히 금반 한 끼 금식 캠페인이 종료된 후 참여 교회 명이 인쇄된 쌀포대에 빈곤가정 한 달 긴급식량(쌀12kg=6000원)과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2016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캠페인 -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40일의 기적’에 참여를 신청하는 교회에는 관련 영상 자료 및 특별헌금봉투가 제공되며, 더불어 빈곤국가 음식체험을 원하는 교회에는 즉석 쌀국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일 점심식사로 대용한 후, 식사비를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유유저금통 캠페인’을 통해 유유 모양의 저금통을 직접 만들고 동전을 모아 기부하여 굶주림으로 영양결핍 상태에 놓인 제3세계 아동들에게 우유를 지원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02-3143-4001이다. 이나래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일 새벽-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를 책임지며, 이단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향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세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598-0191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믿음,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00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 초 정진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후 7:30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 (213)389-0937, (213)389-0938 F. (323)735-1937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셔(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연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삶이 있고 지혜와 위안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4-님 내리 관령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용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심화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성경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 hnsla@hnsla.org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이창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침례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림회 금요일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K/M예배 오후 3:00(장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도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20
수요성경예배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침례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중고등부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

곽력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6:00 (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진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514 Rimel St., Northridge, CA 91328

주일예배(영성예배) 9:30am-11:30am
주일학교(영성예배) 7:15pm-8:30am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예배 월-금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c.office1@gmail.com

“美아이오와 공화당 경선, 보수신앙의 승리”

美대선 첫 관문 아이오와 당원대회... 기독교인 테드 크루즈 승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 테드 크루즈 의원실

미국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며 유력 공화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부동산 재벌' 출신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제치고 '보수 기독교 정신에 가장 충실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테드 크루즈(Rafael Edward Ted Cruz)가 승리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올해 46세인 크루즈 후보는 2003년부터 2008년 5월까지 텍사스 주의 법무차관을 지냈다. 당시 텍사스 최초의 히스패닉계 법무차관이자 미국 역사상 최연소 주 법무차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캐나다 앨버타 주 캘거리에서 태어난 크루즈 후보는 프린스턴 대학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텍사스대 오스틴 로스쿨의 교수로 강의를 하였으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연방 상원의원으로 일했다.

그는 오바마케어 폐지, 국제적 축소와 세금 감면, 국경단속 강화, 종교자유 보장, 낙태와 동성결혼 반대, 경제 발전 등의 공약으로 보수주의 표심을 모아왔다. 크루즈는 전당대회 승리가 확정된 후 “하나님께서 위대한 아이오와 주를 축복하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자신의 지지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감사를 전한 크루즈는 “오늘밤 승리는 풀뿌리 지지자들과 아이오와 주와 미 전역의 용감한 보수주의자들의 승리”라며, “오늘 아이오와는 공화당 대선 후보와 차기 미국 대통령은 미디어에 의해서도, 워싱턴 기관에 의해서도, 로비스트에 의해서도 아닌 이 나라의 국민, 미국인에 의해서 선택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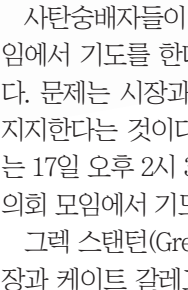
크루즈는 또한 “오늘은 8년간의 긴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견뎌내고 단 한 사람의 힘으로는 워싱턴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든 미국인의 승리이며, 워싱턴을 바꾸는 일이 미국 헌법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자 가장 위대한 나라인 미국을 탄생시킨 드높은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승리”라고 했다.

이처럼 가장 보수적인 개신교단인 남침례교인인 그의 신앙은 아버지 라파엘 크루즈 목사의 영향이 지대했다. 라파엘 크루즈 목사는 지난 2014년 휴스턴 시장 에니즈 파커가 트랜스젠더용 화장실에 관한 시 조례와 관련해 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다섯 목회자들에게 제재를 위해 설교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정부의 종교 탄압에 맞서기 위해 목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동에 나섰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과 휴스턴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샌더스 후보의 돌풍을 가까스로 비껴가며 승리 고지에 먼저 올라섰다.

“사탄송배자들의 시의회 모임 기도 예정”

메피닉스 시의회 모임에서... 시장과 일부 의원들의 지지가 문제



Sal DiCiccio

사탄송배자들이 메피닉스 시의회 모임에서 기도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다. 문제는 시장과 의원들 일부가 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사탄송배자들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모임에서 기도할 예정이다.

그렉 스탠턴(Greg Stanton) 피닉스 시장과 케이트 갈레고(Kate Gallego) 의원은 이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히 갈레고 의원은 “우리는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으며, 기도를 한다면, 모든 관점을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닉스 시 법률담당인 브래드 홀(Brad Holm)도 28일 성명을 내고 시의 결정에 대해 변호하면서 그동안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를 포함해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이 공식적인 의회 모임을 시작하는 짧은 기도를 해왔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방향과 일치하기 위해, 시는 특정 종교적 관점이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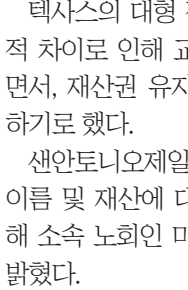
도의 내용에 대해 지시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시 정부는 특정 교단이나 종교를 의회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닉스 시의회 셸 디치치오(Sal DiCiccio)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탄송배자들이 시의회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짐 워링(Jim Waring) 의원도 피닉스 시는 사탄의 성전 회원들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면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사탄의 성전의 회원인 스투 드한(Stu de Haan)은 미셸 숏(Michelle Shortt)과 기도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했다면서, 시의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소수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 반대 PCUSA탈퇴로 거액 지불”

PCUSA탈퇴 샌안토니오제일교회... 재산권 유지위해 18억 원 지불하기로



John Knox Ranch

텍사스의 대형 장로교회가 최근 신학적 차이로 인해 교단(PCUSA)을 탈퇴하면서, 재산권 유지를 위해 거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샌안토니오제일교회는 지난달 31일 이름 및 재산에 대한 소유권 유지를 위해 소송 노획인 미션노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성명을 통해 “합의에 따라 제일장로교회는 152만 5천 달러(약 18억 170만 원)를 노회에 지급한다. 미션노회는 존 녹스 여름캠프와 관련해 이 금액 가운데 12만 5천 달러(약 1억 5,180만 원)를 분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캠프와 관련된 분담금으로 강당 보수에 들어가는 100만 달러(약 12억 5000만 원) 중 1/4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에 도움 주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나 www.johnknoxranch.co.kr를 참조하면 된다”고 했다.

이 교회의 행크 체리(Hank Cherry) 대변인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소유권과 관련한 노회와의 법적 분쟁 기간을 고려할 때 적당해 보인다”면서 “소유권 이전 및 소송 문제 해결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법적으로 유리했으나,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선교에 대한 제약 등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 교회는 작년 11월 1일 투표를 통해 교단 탈퇴 및 복음주의연합장로회(ECO) 가입을 결정했다.

이 교회 서기인 N. A. 스투어트 3세는 당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 교단은 과거와 달라졌다. 성경적·신앙고백적인 정신에서 벗어났다. 약 1년간 기도·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교회 중직들은 교단 탈퇴 및 ECO 가입을 위한 교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ECO에 대해 “신학적 견해 차이로 우려를 사고 회원교회들의 수가 감소하는 PCUSA와 반대로, 활기차게 성장하는 장로교단”이라며 “교육·전도·선교에 있어서 우리와 전통적인 비전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금액을 어떻게 152만 5천 달러로 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체리 대변인은 “협상에 따른 결과였으며, 어떤 공식이나 정책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교회와 노회가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선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 존 녹스 캠프는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고 했다.

계약금 지급일은 3월 21일이며, 양측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악명높은 신성모독법 재고해야”

파키스탄 이슬람 지도자 주장... 기독교 인권단체, 환영 의사 표명

파키스탄의 영향력 있는 무슬림 지도자가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권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슬람법의 호환성과 관련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Council of Islamic Ideology) 무함마드 칸 셰라니(Muhammad Khan Sherani) 위원장은 “파키스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에 신성모독법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성직자들 사이에 신성모독법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여, 현재의 법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강화하거나 완화할지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CLAAS(The 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의 나시르 사에드(Nasir Saeed) 회장은 “이번 성명은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의미한다. 특히 신성모독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그러하다. 이 법으로 인해 처형당한 이들은 아직 없지만 고문받는 이들은 매우 흔하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고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유명한 진보 정치인인 살만 타세르는 지난 2011년 신성모독법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여성을 옹호하다 자신의 경호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큰 희망은 없지만,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고무적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법을 논의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이 법안의 지속적인 오용을 그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학교 내 이슬람 확산”

천송가 ‘하나님’도 ‘알라’로... 비엔나대 연구결과 150여 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와

오스트리아 학교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교사가 찬송가 가사의 ‘하나님’을 ‘알라’로 바꾸어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항의 학부모들이 지역 교육당국에 이 일을 알리면서 조사팀이 파견되었고 실제로 교사가 가사를 바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제 학생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무슬림 어린이들이 반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가사를 바꿨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비엔나대학교 에드난 아슬란(Ednan Aslan) 교수는 오스트리아 정부 사회통합정책을 위해 진행한 연구 조사에서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원리주의인 살라피즘 신봉자들이 오스트리아 유치원과 학교들을 극단주의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슬란 교수는 정부와 각 지역 당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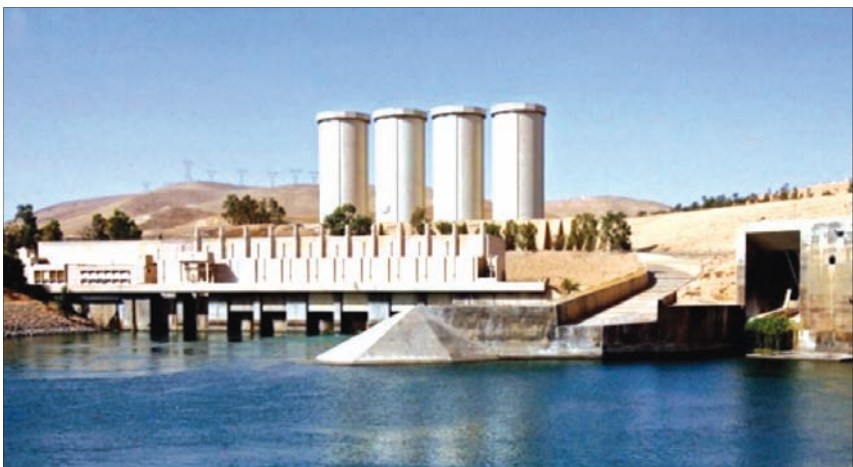
꺼려하면서도 내 준 승인을 통해 살라피스트들과 이집트 살라피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 소속 극단주의자들이 학교에서 세력을 얻고 있다며, 정부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 150여 개의 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슬란 교수는 이들 학교들이 정부 교육 정책을 위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극단주의화 정책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법을 어겨서 갈등을 빚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고 교조주의적인 이슬람 신학을 주입하고 있다. 이슬람 신학이 이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가르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라크 최대 ‘모슬렘’ 붕괴위기”

모슬 시내 20m 잠기고 50만 명 사망 예상



이라크 최대 댐인 모슬렘. ©자료사진

이라크 최대 댐인 모슬렘이 붕괴 위기에 있다. 이것이 붕괴되면 모슬 시내에 20m 물 아래로 잠기고, 최대 5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정부군은 얼마 전 미군 등 연합군의 공중지원을 받아 수니파 이슬람 국가(IS)로부터 모슬렘을 탈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연합군은 모슬렘 붕괴 가능성을 조사했고, 선 맥팔랜드 미군 사령관은 이

라크 정부와 긴급대책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모슬렘이 연약한 지반 위에 주로 흙으로 건설되었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댐은 1980년대 건설됐고, 2006년 미공병단은 보고서를 통해 쉽게 침식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댐”으로 지목했다. 이 댐은 티그리스강에 위치해 있으며, 중동에서 4번째로 큰 댐이다. 현재는 일부만 가동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성장”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커지고... 이슬람은 사회 전반에 걸친 삶의 지침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거나 개종 거부자들을 죽이는 시리아·이라크에서의 이슬람화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발행하는 선교보고서 파발마 2.0 최근호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종교에 참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여겼으며, 또한 엄격한 이슬람 신앙을 고수하거나 이슬람식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시대에 역행하는 것

으로 여겼다”면서 “그러나 자카르타에서 이슬람은 개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시민들의 정치·법률·문화·경제·교육의 전반을 아우르는 삶의 지침이 되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을 최고 권위로 여기는 근본주의 사상만큼은 시리아·이라크 등과 동일하다. 보고서는 또한 “비록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중동식 급진주의를 비난하고 인도네시아의 아랍화에 난색을 표하지만,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신앙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TR학당 토 9:30AM-10:00PM
대학원부E-college 주일 2:00PM NEXTR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유.초등부 예배 12:30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날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전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죽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후 2:30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벤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향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심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행사기도회 새벽 6: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 금학교, 에프타스콜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예배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wyc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혁희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가예: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생생한 성지 이야기(1) 산르우르파

선지자들의 도시, 산르우르파

아브라함과 야곱 품어줬던 곳...오늘날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1. 선지자들의 도시, 산르우르파 (Sanli urfa)

산르우르파는 '선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탄생했던 곳이자(이슬람교 주장) 오랜 시간 생활했던 곳이고, 욥이 생활했던 동굴과 그의 무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2. 유적 및 성지

◆우르파 성채

물고기 연못 남쪽 돌산에 우르파 성채가 있습니다. 이 성채는 고대 히타이트 시대부터 있었는데, 지금 전해 오는 것은 서기 815년 재건한 것입니다. 언덕 위에 높이 17m의 돌기둥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3세기경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곳에 오르면 아브라함의 출생지와 성스러운 물고기 연못을 비롯하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아브라함 출생지, 아브라함 동굴

산르우르파 성채의 산기슭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그곳에 이슬람교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자랐다고 믿는 동굴이 있다. 이 동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흰 사슴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한다.

동굴 안에는 이슬람교에서 '우드'라 부르는 정결의식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수도시설이 있는데, '성지'를 순례하기 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도록 유리로 보호막을 쳐 놓고 동굴 안쪽을 그 유리막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리막 너머 동굴 안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무슬림들은 이를 성수로 여기고 있다.

이 동굴에는 이슬람화된 투르크족이 이 땅을 침략하기 오래 전부터 구전되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 구전은 예수께서 태어나던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다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레헨에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이야기(마 2:16-18)와 유사하다.

예전 '세상의 처음 영감'이자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창 10:6-9)이 자신의 바벨론 왕국을 수립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 꿈에 나타난 어떤 신인에게서 그 해에 태어나는 아이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니므롯 왕은 그 해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니므롯 왕의 명령 후 아브라함의 어머니인 젤리하(Zelicha)가 아브라함을 임신한 상태로 유아 살해를 피해 이 동굴로 숨어 들어왔고, 이 동굴에서 아브라함을 낳아 7살 될 때까지 길렀다고 한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조상, 혹은 성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인물인데, 유대교 경전과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 이슬람교의 꾸란 어느 곳에도 아브라함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없으므로, 이 산르우르파 지역에서의 구전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절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다는 기록을 볼 때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비록 소수이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터키의 산르우르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아브라함(이슬람교에서는 Ibrahim이라고 부른다)을 기독교,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슬람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탄생 동굴 근처에 메블리드 할릴 이슬람 사원을 짓고 이곳을 이슬람교의 성지로 지정해 놓아서, 무

슬림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찾고 있다.

◆신성한 물고기 연못의 발룩르 골

산르우르파 중심부에는 가로 30m, 세로 150m의 발룩르 골(물고기 연못, Balikli Gol)이라 불리는 연못이, 그 바로 옆에는 할릴 라흐만 자미(Halil Rahman Camii)가 있다. 이 물고기 연못에는 잉어 같이 성인 팔쪽 만한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물 반 물고기 반'이 아니라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 연못에도 아브라함과 관련해 구전되는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 동굴'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달의 신(月神)인 '신(Sin)'을 믿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통신앙을 모두 버리라고 선동하고 어지럽히니, 통치자로서 니므롯은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다.

니므롯 왕은 연못이 있는 이 자리에 아브라함을 잡아 끌고 와서, 장작을 높게 쌓은 형틀에 묶어 놓고 장작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장작더미를 휘감으며 활활 타오르던 불길에 아브라함도 휘감으려던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큰 비가 내려 아브라함은 다행히 죽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내렸던 바로 그 빗물이 모여 지금의 '물고기 연못'이 만들어졌고, 높이 쌓여 있던 장작들이 모두 물고기로 변하고, 그 물고기들이 번식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무슬림들은 이 물고기들을 매우 신성시하고 있으며, 잡아먹을



산르우르파 아브라함 동굴 입구.

경우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이 닥친다고 믿고 있다.

◆욥의 동굴

아브라함 동굴에서 차로 타고 10분 정도만 가면 욥이 생활했던 동굴이 있다. 동굴 위에는 돛 양식의 작은 건물이 있고, 동굴은 그 돛 양식 건물 안에 있다. 지하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면 좁은 공간이 나오는데, 욥이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며 지냈던 바위가 그곳이다. 그 공간은 쇠창살로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밖에서만 기도하거나 종교 의식을 행해야 한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욥기'의 주인공이다. 동방의 의인이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들을 가지고 처자식들과 행복하게 살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만다. 하나님께 받은 재물과 부인, 자녀들 모두를 잃고 병든 욥이, 이 동굴에 와서 생활했다고 전해진다.

욥이 생활했던 동굴 외에도, 그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다는 우물이 있다. 출입구 옆쪽에 수도가 있고, 그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그 우물물이라고 한다. 이 물은 병을 치료하는 효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욥의 무덤과 엘리사의 무덤

또 욥의 가족들의 무덤이 몰려 있는 곳이 있는데, 이는 욥의 동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방의 의인 욥의 소문을 듣고, 선

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선지자 엘리사가 이곳으로 욥을 찾으러 왔지만, 사탄의 방해와 계략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고 결국 그곳에서 죽었다는 전승도 있다. 그래서 산르우르파에는 욥의 무덤과 가까운 거리에 '엘리사의 무덤'이 있다.

3.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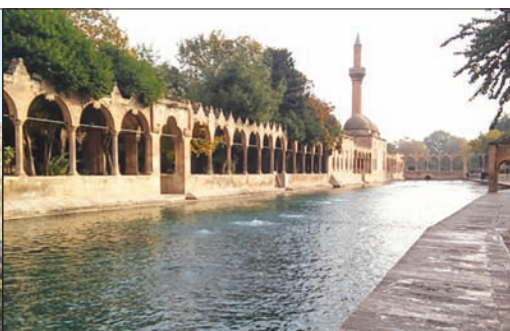
이처럼 산르우르파(하란)는 하나님 말씀을 좇아 편안한 고향을 버리고 고단한 나그네의 길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예서에 아내를 제공했으며, 예서의 추격을 피해 고단한 피난길에 올랐던 야곱이 쉼을 얻으며 아내를 만난 곳이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에도 산르우르파는 내전과 IS의 횡포를 피해 모든 것을 잃거나 버리고 고향을 떠나 온 시리아 난민들에게, 열악하지만 편안한 안식을 주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21세기의 나그네들이라 할 수 있다. 또 산르우르파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4천 년 전 구약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산르우르파(하란). 시리아 난민촌에서 있으면, 예전 따뜻하고 편안한 고향 땅을 떠나 왔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애절한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여행제한 구역이라 일반인들이 여행할 수 없어 안타까움은 배가되는 것 같다. [자료제공: 레팜 난민선교회]



산르우르파 고대 성채.



연못 발룩르 골.



'욥의 동굴'로 알려진 곳.



산르우르파의 한 난민 어린이.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4. 홀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홀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홀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홀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삶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홀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수피즘 연구(1)

‘이슬람 신비주의’로 알려진 ‘수피즘’이란 무엇인가

서론

정통 이슬람교가 전반적으로 율법적·의례적인 종교로서 영혼의 만족이 없는 세속적 종교 형태에 머물러 있자, 이에 만족하지 못한 이슬람 신학자들이 인간의 내면적 변화를 촉구하면서 신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을 연구하며 신비주의 종교로 창립한 것이 수피즘이다.

수피즘은 초기에 인간의 탐심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금욕주의적 형태를 띠고 알라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수피’는 가난을 상징하는 양털 옷을 입고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수피즘은 정통 이슬람과 꾸란의 가르침에 의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알라의 초월성과 인간이 받을 길이 없는 알라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들 주변 문화적 사머니즘이나 범신론과 혼합된 종교이며, 꾸란과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해당되지 않은 ‘알라의 내재’ 신학을 창안하였다.

그러나 수피들은 그 정통성에 대한 의심과 정죄를 피하여, 꾸란에 기록된 한 개의 구절인 “... 인간의 목에 있는 혈관보다 내가 더 인간에게 가까이 있노라 (Sura 50:16)”를 근거로 ‘초월적 알라’는 동시에 ‘내재적 알라’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수피즘은 알아 안 보이는 짙막한 율법주의나 사나운 무기로 성전이나 테러를 일으키는 원리주의도 아닌, 위와 같이 자기 부정과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온건한 이슬람’이라는 이미지를 세상에 보이면서,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장려하게 되었다.

현대 수피즘 내지 이슬람 신비주의는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70%를, 수피 종단들의 회원 수는 세계 이슬람의 1/3 내지 1/2를 차지한다.

이슬람이 수피즘을 통해 온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알게 된 이집트의 정부와 알아자르대학교 학자들은, 능력 있는 이슬람 포교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수피학 학교’들과 수피즘 학술센터들을 세웠다.

모로코는 수피즘에 뿌리를 둔 나라다. 2010년 모로코 정부가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하여 수피 운동을 확산시키고 극단주의와 싸우게 하여, 이곳에서는 수피즘에 의해 극단주의가 몰려났다.

세네갈에서는 애니미즘과 혼합된 수피즘이 정통 이슬람 세력보다 강하고, 모스크의 이맘보다 수피의 마라부트가 더 큰 권한을 행사한다. 세네갈 수피 아마두 밤바가 창설한 무리디아 종단은 세네갈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세네갈의 가장 강력한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 종단은 세네갈의 두 번째 도시인 투바에 근거지 및 모스크와 종교 학교를 세우고, 농장을 잘 경영하여 부를 획득하였다. 국가는 이곳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리디아 종단과 상의하고 권력을 분배한다.

세계 이슬람은 2020년까지 한국을 샤리아가 다스리는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6-7월 라마단 기간 동안 세계 무슬림들이 모두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 등에 태극기를 수놓은 옷을 입고 기도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2000년 6월 13일에는 주한 이슬람문화원이 주최한 터키 수피즘 메블라나 종단의 세마춤 공연이 펼쳐졌다. 세계 무슬림들이 메블라나 수피들의 공연을 이슬람의 문화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메블라나 종단 창시자 메블라나 잘랄루딘 루미의 저서들은 현재 서구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유네스코는 루미의 출생 800주년을 기념해 2007년을 ‘루미의 해’로 정했다.

세계가 이슬람 수피즘의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필자는 아직 수피즘에 대해 잘 모르는 한국 교회에 비록 제한된 지식으로나마 그 실체를 소개하며, 수피들의 신학과 신비 체험을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1. 수피들의 신학

‘알라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수피들의 신학은 종파에 따라 사머니즘 문화와 혼합된 형태와 아시아의 범신론적 고등종교 철학과 병행된 형태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신앙적 목표인 ‘알



이동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 소장

라와의 합일’의 신비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유신론적인 합일신학’과 ‘범신론적인 합일신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 유신론적인 합일신학

이집트에 1,100-1,500만 명의 수피들이 있는데, 수피 종단 창단자들(셰이크들)을 숭배한다. 그들의 묘는 모스크 안에 있고, 수피들은 이들의 묘에 손을 대면 그 복이 자신들에게 온다고 믿는다.

이들의 묘소는 기도, 질병치유, 복, 물질적 도움을 구하는 순례지다. 카이로에는 후세인의 누이인 사이다 자이납의 묘가 있는 모스크가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동네 여인들이 복을 받으려고 그 묘에 가서 줄을 서 있다고 한다.

병시대 교수 조희선은 이슬람 수피들의 ‘사자(死者) 숭배’ 내지 ‘성인 숭배’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자헨리아 시대에 있던 성인 숭배가 Sura 10:62에 전수되었다고 보았다: “실로 하나님의 알리들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느니라.” 조희선은 “알리”를 보호자, 복 주는 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한다.

시아파는 ‘마지막 예언자’가 죽은 후에 창조자와 인간 사이의 심연을 매워 줄 중개인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알라의 후손이 결합이 없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그들에게 이맘의 자리를 계승시켰다. 이렇게 시아파에 의해 알리와 그 후손들과 이맘들이, 수피즘에 의해 수피 종단 창단자들이 숭배를 받게 되니, 이에 대해 정통파인 수니 무슬림들은 무함마드에게도 그러한 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정통파에서는 무함마드 숭배를 거

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다.

정통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성자’나 ‘알리’보다 앞선다는 것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메디나 무함마드의 묘소에서의 사자 숭배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함마드 출생과 사망일에 무함마드 숭배를 함의(ijma)에 의해 인정하였다.

이븐 타이미야(1328)는 “예언자의 모스크에서 올린 한 번의 예배가 다른 곳에서 행한 1,000번의 예배보다 나은니라”고 하고, “예언자에게 인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무슬림들은 이와같이 어떤 거리낌도 없이 무함마드와 토착 성인들과 알리들과 이맘들을 숭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함마드는 수니파에서 숭배를 받게 되고, 무함마드 숭배는 수피즘에 의해서 가중되었다.

수피즘은 무함마드를 최고의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더욱 심한 것은, 무함마드와 하나되는 것이 19세기 시나이 종단의 종교적 목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시아파 중 Alevi파는 무함마드보다 알리를 더 우월하다고 믿는다.

‘유신론적 합일신학’은 알리를 무함마드와 동일시하거나 알라의 유출이라 주장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마흐디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키스탄의 마흐디 운동은, 이슬람에 한 약속된 메시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흐디(mahdi)’라는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나타난 마흐디란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메시야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한 선생을 말한다.

그 첫 마흐디가 인도 태생의 하즈라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zrat Mirza Ghulam Ahmad 1835-1908)이다. 그는 편잡 지방에서 신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자칭 마흐디라고 하였다. 그 추종자들은 그를 무함마드의 형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알라의 계시가 무함마드 이후에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무함마드를 ‘마지막 율법 계시자’로, 그리고 그 자신을 그 율법을 오염에서 정화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선지자’로 칭하였다.

그는 꾸란을 일점일획도 달라질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이 땅 위에 오직 하나의 세계 종교인 이슬람만이 존재하는 유포피아를 이를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뒤를 이은 하즈라 알-하즈마우비 두르-웃-딘(Harzat Al-Haj Mauvi Dur-ud-Din 1914)은 자신을 첫 번째 칼리프라 하였고, 그 뒤를 이은 칼리프들에 의해 마흐디 종단 이슬람은 학교와 병원 선교를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꾸란은 100개의 언어로 그 의미가 번역되었다.

이 밖에 Babismus라는 마흐디 운동가인 페르샤인 미즈라 알리 마함메스(Mirza Ali Mahammes, 1821-1850)는, 자신이 문(ba:b)이자 ‘하나님의 숨의 거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Mahdi와 선지자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Behaismus 창설자인 테헤란 출신의 미즈라 후세인 알리 누리(Mirza Hussein Ali Nuri, 1817-1892)는 자신을 알라의 유출 내지 광채(Beha Allah)라 하고, 모든 종교들이 희망하던 마흐디들(재림 그리스도, 크리슈나, 이맘 후세인의 출현)의 성취라고 주장하였다. 이 마흐디 운동들은 근본 꾸란이 무함마드 자신을 아흐마드, 즉 “찬양받을 자”의 위치에 올려 놓은 데서 시작되었다. Sura 61:6은 예수가 무함마드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는 구절이며 다음과 같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마이란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증하노라.”

마흐디 무슬림 공동체의 제4대 칼리파인 Hazrat Mirza Tahir Ahmed에 의해 출판된 「Der Heilige Qur-an」에는 위의 절 “아흐마드”에 관한 각주가 있다. 그 내용은 아흐마드가 성경의 보혜사(Paraklet)와 동일하고, 그것은 무함마드가 온다는 뜻이라고 한다. Su:ra 7:157의 각주 157-1)에는 신 18:15의 ‘나와 같은 선지자’와, 요 14:16의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무함마드라는 이다.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하나님의 교회: 흔들지 못하리라

이수영 | 생명의말씀사 | 304쪽

함께 출간된 <하나님의 교회: 다시 숨쉬게 하라>와 함께 이수영 목사의 은퇴를 기념하여 펴낸 설교 선집이다. 저자가 지난 15년간 한국의 '어머니 교회'를 담임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확신과 기쁨으로 전한 메시지들 중 엄선했다.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최우선하고, 본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JUM 성경읽기표와 함께하는 일독큐티

문정웅 | 비전북 | 208쪽

1-3월까지,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통독하면서 큐티할 수 있다. 말씀 순서대로 교회의 모든 새벽예배와 주일예배, 성경공부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12월 31일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마무리된다. 저자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말씀을 읽고 믿음에 선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영혼의 정원

스테니슬라우스 케네디 | 열림원 | 388쪽

1958년 아일랜드 가톨릭 자선수녀회에 입회한 이래 50여 년간 여러 사회 활동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고 있는 저자의 일기와 잠언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을 할 적엔 기도하는 마음을 들고 가고, 한참 활동하다가 다시 고요한 기도로 돌아오곤 한다는 저자는 활동가로서와 고요한 수도자로서의 모습이 조화를 이룬다. 이해인 수녀와 조카 이진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녹색 고전: 서양편

김옥동 | 비채 | 348쪽

고전문학이 말하는 '자연 친화적 삶'을 통해 생태의식 개선을 추구한다. 다양한 고전에 담긴 선조들의 '생태적 삶'을 재조명,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문학 읽기'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서양의 여러 환경운동가들은 구약성서에 담긴 태초의 자연 모습과 탈무드에 깃든 소비자본주의 비판에서 영감을 얻었다. 번역가이자 저술가인 저자는 '녹색 고전' 동양편과 한국편을 함께 펴냈다.



REVIEW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정인수 목사 30년 목회 현장에서 발로 뛰어 얻은 위기 극복 솔루션

에블랜타연합장로교회 담임 정인수 목사의 신간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두란노)>가 출간됐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닥친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다. 어떻게든 빠져 나오려 발버둥치게 된다.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교회에서 목회자로, 리더로 사역하다 보면 술한 위기를 만난다.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 많다. 그들과 협력하여 사역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30년 목회 중 술한 위

기를 극복한 정인수 목사가, 멘토의 마음으로 들려 주는 '위기 극복 솔루션'이다. 정인수 목사는 에블랜타연합장로교회의 담임으로, 분열·정체되어 있던 교회를 성장·발전시켰다. 저자가 목회를 통해 체험한 리더십 극복의 사례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영적 리더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기는 리더를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다. 이 위기를 성경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맡겨야 한다. 자기의 지대로 풀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극복



진정한 리더십은... 정인수 두란노 | 240쪽

할 수 있다. 이 책은 목회자와 신학생은 물론 교회의 리더들에게 유익하다.

정인수 목사는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는 총체적 방향 상실에 있다. 여기에 모든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풍랑 가운데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는 형국인데, 더 심각한 것은 나침반이 있어도 도달 목표 지점이 없다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다. 오늘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해법은 성경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위기가 왔을 때 믿음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리더십으로 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목사는 “그동안 목회를 통해 체험한 리더십 극복의 사례들을 이 책에 담아 보고자 했다. 그리고 신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정

체성의 위기, 현대 사회의 위기 등을 성경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추천의 글에서 김삼환 원로목사(명성교회)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감당해 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회를 물려 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정 목사의 목소리에 한국교회와 사회가 귀 기울일 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는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수영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전문점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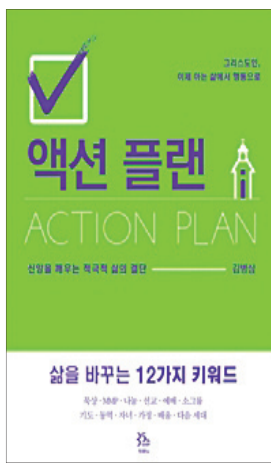
“성장과 성숙 사이의 통곡 담은 ‘액션플랜’”

다시 오류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사역의 로드맵’

신간 ‘액션플랜’의 저자 김병삼 목사(만나교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에 달렸다”며 “이 책은 ‘신앙 여정을 위한 지침서’로, 설교 주제에 맞추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봉사·사역의 장을 소개받아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성장’과 ‘성숙’ 사이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고민하다 이 책을 엮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담임목사가 된 후 11년 동안 열심히 목회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로 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성장’을 이루었지만, 성도 수가 늘어나는 만큼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며 “목회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처절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히브리어 5장 12절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며 “이제는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이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어 기자의 마음이었겠구나 싶었다”며 “다시 사역의 ‘로드맵’을 그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액션 플랜
김병삼
두란노 | 268쪽

김 목사는 2010년부터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목표를 세워 설교하기 시작했고, 2010년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주제로 시작해 2011년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2012년에는 ‘더 좋은 성품’에 대하여 설교했다.

그는 “그러고 나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시작되었다”며 “그래서 2013년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복음과 제

자도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고, 2014년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급진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2014년 한 해는 ‘레디컬’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2015년은 ‘급진적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액션플랜’으로 로드맵을 그렸다. 그 후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12가지 키워드를 뽑아 성도가 이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익혀 결단하게 했다.

12가지 키워드란 ‘묵상, MMP(이웃 교회 살리기), 나눔, 선교, 예배, 소그룹, 기도, 동역, 자녀, 가정, 배움, 다음 세대’ 등이다. 그는 이 12가지 주제를 매주 하나씩 성도에게 풀어 놓았다. 성도는 한 가지 주제가 끝날 때마다 ‘Action Passport’라는 결단서가 담긴 수첩에 서명을 함으로써 실천하고 변화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했다.

저자는 “이 책은 다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사역의 로드맵”이라며 “매년 우리 교회 성도가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같은 고민을 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신앙의 여정에 함께 발자국을 찍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애 기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시간



성경을 쓰다
고진하
지혜의샘 | 222쪽

재와 접촉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읽고 번역하면서 행복했노라고 고백한다.

“나는 몇 달 동안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읽고 번역하면서 행복했다. 하나님의 송고에 달아 온몸으로 전율한 인간의 성스럽고 내밀한 체험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나는 몇 달 동안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읽고 번역하면서 행복했다. 하나님의 송고에 달아 온몸으로 전율한 인간의 성스럽고 내밀한 체험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막해 시대의 순교자들, 광야로 나가 고독과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과 사귄 수도자들, 시대의 모순과 갈등에 괴로워하며 변혁을 추구한 종교개혁자들, 저 밑바닥 저자거리로 나아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성직자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둔 난 삶을 추구했던 평신도에 이르러까지, 기도의 용사들의 대담하고 정직한 고백의 문장을 읽으며 나 역시 깨어지고, 부서지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읽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기도문 속에 깃든 고통과 눈물과 탄식, 그리고 거듭남의 환희와 합일의 황홀은 내 마음에도 천둥처럼 큰 울림으로 메아리쳤다. 우리가 기도문을 베끼는 것은 기도의 테크닉을 배우고자 함이 아니다. 기도는 삶이요, 고백이며 배움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행복을 맛볼 차례다. 깨어지고, 부서지며, 다시 일어설수록 하는 선배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게 되는 행복을 말이다.

기도를 필사하며 듣도록 QR코드로 음악을 연결했다. 저자의 육성으로 듣는 기도문도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쓰기 편하도록 PUR 제본으로 만든 것도 독자를 위한 배려라 할 것이다.

이영인 기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의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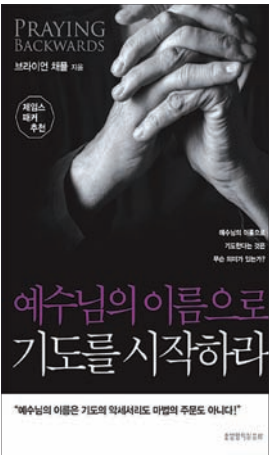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좋은 기도의 추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리는 서곡이다.” -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약세서 리도 마법의 주문도 아니다!”
“함부로 의미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 익숙한 문구는 영화의 ‘클로징 크레딧’처럼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문구를 덧붙였다고 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기도를 마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 놓



예수님의 이름으로...
브라이언 채플
생명의말씀사 | 288쪽

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서둘러 기도에서 서명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치 기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주문 같은 것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의

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란 말은 마법의 주문이나 단순히 기도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이며,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행위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란 말은 기도와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내 뜻대로 마음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 간절히 기대감을 품고 담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기도생활을 새롭게 혁신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귀를 기울여라.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역동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대리점 모집

점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술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적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갈라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방창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음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테오 켈러리아)

Tel: (323) 316-6815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급 제1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주님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책장, 편지봉투,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시작으로 발송당시에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노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연황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rd St. Carson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Korean Americans Seek to Inspire and Represent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 professionals working in various fields gathered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on Saturday for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KAC)'s National Convention. For the first time, KAC collaborated with USC's Korean American Student Association (KSA) to host its convention.

Accordingly, the convention's seminars and topics were geared more towards a younger audience, according to Steve Kang, the current KAC-LA deputy director. The convention, themed, "Building Communities," focused on numerous Korean Americans' trajectories in various career fields, and featured accomplished Korean Americans in fields such as politics, entrepreneurship, law, finance, and entertainment.

Assemblywoman Young Kim of the 65th District and Los Angeles City Councilmember David Ryu were featured as the keynote speakers during lunch, and La Palma City Councilmember Peter Kim was featured as one of the panelists of a session focusing on political activism.

Other speakers throughout the convention included Los Angeles County Supervisor Michael Antonovich; Michael Sohn, a supervisory special agent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Young Cha, CEO and founder of OnDemandKorea; Ted and Yong Kim, founders of Seoul Sausage Company; Jun Oh, the senior vice president of business affairs at Warner Bros. Pictures; and Hank Kim, commander in the U.S. Navy specializing in surface warfare, among others.



David Ryu was one of the keynote speakers during lunch at KAC's national convention which took place on Saturday.

Many of the speakers shared stories of how they arrived at their current position to the some 100 people -- mostly students -- at the convention.

"There's so many people who say, 'It's not for me,' or 'It's too hard,' and just quit," said Michael Sohn. "Name every test -- I failed it. But I kept trying and that's why I'm here."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mall job," Councilmember David Ryu said. "You've got to work hard at every thing you do." He added that many of the opportunities that he was able to have was due to his seeking out various people in his life for help.

Assemblywoman Young Kim said that she herself stands as an example that "as a female," and as a part of a minority ethnic group, "You can have the career of your dreams, and have kids, and make

a difference."
"You need to work on one person, one community at a time," Kim added.

Some speakers discussed the degree to which Korean American culture and interests have been garnering more awareness in the mainstream. In the political realm, Gene Kim, the senior consultant for Imprenta Communications, explained that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in terms of getting more representation of Korean Americans through elected Korean American officials, but there is still room for "much more progress," he said, in terms of pushing for Korean American interests.

"It's a sign of progress that these Korean Americans are getting elected, but once elected, my hope is that they wouldn't just be present, but leading and fighting for the interests not only of Korean

Americans but all Americans," Kim said.

"Guys like us, we're few in number," said Ted and Yong Kim of Seoul Sausage as they encouraged those who were present to support Korean American products. "We've only scratched the surface of what could be done."

Meanwhile, KAC currently has eight branches throughout the nation, including in Atlanta, Dallas, Chicago, San Diego, Portland, Seattle, and Orange County. Last year in particular, the Portland chapter hosted the first ever Korean food festival in the city, and Seattle held legislative panels to increase recognition and awareness of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Most chapters have continuously held voter registration drives, one of the key activities by which KAC was founded.

Reunion of Families Divided by Korean War Urged by Activists

BY RACHAEL LEE

"This old grandma has a dream too. My dream is to step on the grounds of my hometown one more time. When Korea is unified once again, I really want to go back to my hometown."

Such were the words shared by Hee-Bok Kim, an elderly woman in her nineties whose family was divided during the Korean War. Kim was one of six panelists at a session about divided Korean families during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KAC)'s recent national convention which took place on Saturday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Kim's hometown is Pyongyang, but moved to Seoul after she got married, when "all of a sudden, the war broke out on June 25," she said. All of her family remained in North Korea.

In 1988, Kim moved to the U.S. with hopes to see her family again, after hearing that it was easier to visit the North with a visa from America. And after three years of processing documents, she visited the North in 1991.

"When I finally got there, I found out that all of my family, my parents, my siblings, had all passed away," she recalled. "I just wept there, and came back."

Though dwindling in number, individuals like Hee-Bok Kim are still alive today and many await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said the panelists during the session.

The panelists urged the 100-some members of the audience to engage with their respective Congressmen and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o encourage them to pass House Concurrent Resolution 40 (HR40), a resolution authored by Congressmen Charles Rangel and Ed Royce to actively encourage North Korea to allow reunions of divided Korean American families due to the Korean War, and to call on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 build goodwill that is conduciv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solution text notes that "the number of more than 100,000 estimated divided family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last identified in 2001 has been significantly dwindling as many of them have passed away," and adds that "many Korean Americans are waiting for a chance to meet their relatives in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60 years."

"Together, we can make a change. This is the dying wish for many people," implored Jeane Noh of the Divided Families USA team. "There are still people alive, and this could be a reality for them if we act quickly."

Noh said that increasing numbers on the organization's listserv, as well as registering more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are separated from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will help to increase legitimacy in pushing for legislation in favor of reuniting divided families.

A similar concurrent resolution was introduced in the House in March of 2014 (HR91), but no action was taken after April of 2014. HR 40 was introduced in April of 2015 and has 65 co-sponsors.

'The Church Without Walls' Serving and Worshipping in L.A. Streets

BY SHELBY MOON

Located in the heart of downtown Los Angeles where many homeless individuals live is The Church Without Walls -- a church with literally no walls, accessible to anyone who would like to visit.

As a church not within a building but one that simply meets on the street, one could have a first-hand experience and encounter of Christ's love simply as they walk along.

The church was planted by an African American pastor by the

name of Cue Jean Marie ten years ago. Currently, the church has some 20 congregants, 10 of whom are homeless, and the rest of whom come to the church to serve those who are homeless.

There are about six Korean American members as well, including Yukyung Joo. After worship every week, the church members give food to some 150 homeless individuals around the area, and share God's love through worship, prayer, and fellowship.

"Without faith and obedience, it's a work that we simply cannot



The Church Without Walls worships on the street in downtown Los Angeles.

do," explained Joo. "There have been times that certain people disturbed the worship service because they were high on drugs or drunk."

"But even in those situations,"

Joo said, "I realized that God's heart is there."

She added that the church is currently in need of an open location that is available 24 hours a day for anyone to easily come and pray.

Living Way Community Church Celebrates 16 Years

BY RACHAEL LEE

Living Way Community Church, located in Los Angeles, celebrated its 16th anniversary on Sunday with a special worship service.

Living Way began in January of 2000 with just 20 people in the home of Pastor James Yim, who planted the church and currently serves as the co-lead pastor. Today, the church has grown to consist of some 260 members on an average Sunday, with various ministry opportunities and active outreach and missions programs.

"I think I say this every anniversary, but we made it through another year, not because of us, but in spite of us," Yim said. "Because we serve and worship a great and awesome God who is faithful and merciful and gracious."

Hahri Shin, who has been attending Living Way for about a year and a half, became a Christian through the church, and shared through a testimony during the service the ways in which the Living Way community has allowed him to grow.

A Philadelphia native, Shin moved to Los Angeles in 2014 and wouldn't have identified himself as



Pastor James Yim (left) preached, while Hahri Shin (right) shared his testimony during Living Way's 16th anniversary Sunday service. (Photos courtesy of Living Way Community Church)

being religious at the time. Though Shin's family was religious, he shared that he felt religion was more about how one is perceived by others or how to carry oneself.

As a result, Shin said, he found it easy to distance himself from God, and eventually found himself tangled in issues such as alcoholism, drug use, and depression.

"I was pretending to be someone I wasn't because I wanted [people's] love and approval," Shin said.

"I would do anything and everything to fill a void in my heart, which I thought could be filled with earthly desires."



"It only took one visit to Living Way for the word of God to grab a hold of my heart," Shin said. "Where there was an emptiness in my heart, it's now overflowing with God's love."

Indeed, Yim affirmed during his sermon that Christ's blood removed the sins of all people, and gives access to the most holy God. As he preached from Hebrews 10, he also emphasized that a community of believers are called to a certain dynamic of commun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world, as he focused on verses 24 and 25: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Christ's work on the cross doesn't only radically transform our relationship with God -- Christ's work on the cross radically transforms ou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Yim said.

The author of Hebrews encourages Christians to continue to meet together, "because you can't stir someone to love and good deeds in absenture," Yim said.

Not only must believers continue to meet together in community, but they must "seek God for ways to encourage each other" -- it is a responsibility for all Christians according to the text, Yim said.

"Your attendance here, no matter how frequent, does not make you a part of this body -- and I say that lovingly," he continued. "Church is not a gathering of Christians to sit and listen to preaching. Church is a gathering of men and women who have made a covenant with each other, in light of their covenant with Christ, to do life together. That's the church."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lca.org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능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PRESIDENTS DAY SALE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JUST ARRIVED

Get Better Deal On
2016 Hyundai
Find Out Why!!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62,45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